늑대와 함께 춤을 (2021) – 인터프리터들을 위한 글

A Dance with a wolf

Platform-L Contemporary Art Center

1. 개요

강남 한 복판에 위치한 플랫폼엘의, 깊은 지하공간에 안개가 자욱하고 자못 수상한, 초원이 들어선다. 익숙한 동시에 낯선 이 공간 안에 홀로 춤추는 자가 보인다. 자신을 응시하는 관객을 발견한 '춤추는 자'는, 이내 그를 의식하고, 주변을 맴돌며 함께 춤을 추려고 시도한다. 관객은 이에 응하거나, 외면하거나, 아예 이 상황의 바깥에서 모든 것을 관조할 수도 있다. 작품은 내용은 이러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모든 감정의 동요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살아있는 자들은 약육강식의 사슬 속에서 도태되거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기도 하지만, 아슬아슬한 공생이라는, 상호이익을 위한 '일시적' 대안을 채택하기도 한다.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 존재하는, 여러 선택과 동기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다. 익숙한 동시에 아주 낯선 공간에서, 타자를 조우하는 몰입극적 상황을 무대로 삼아 이 개념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이 불편한 대면과 동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이를 살아있는 장면으로서 다루어 본다.

2. 일정

장소 :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33길 11)

설치 : 10월 11일(월), 10월 12일(화)

사전미팅 : 9월 29일

최종 리허설 : 10월 13일, 10월 14일, 10월 15일

전시 : 10월 16일(토) ~ 10월 21일(목) (10월 4일 (월) 휴관) 13:00 ~ 20:00

철수 : 10월 22일(금)

3. 팀

작가/감독 : 박관우

공동안무/드라마터그 : 송재생

인터프리터 : 곽유하, 단테라, 양정윤, 임병수, 박강원

사운드 디자인 : Luke Rideout

조명 : 이재진

어시스턴트 / 모더레이터 : 최은총, 임나린

전시서문 : 장진택

전시후원 :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4. 시놉시스

이것은 10분씩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장면이다.
플랫폼엘의 중정에 들어서게 되면, 안내를 위해 상주하는 인원을 만나게 되며, 안내사항을 전달받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내사항 〉

1. 엘리베이터를 나서는 순간 작품의 경험은 시작됩니다.
2.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신발을 벗어서 문 앞에 두고, 공간 안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3. 앞에 보이는 좌대에 놓인 헤드셋을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정해진 감상시간이 끝나게 되면 공간이 어둡게 변하게 됩니다.
5. 쓰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서 좌대 위에 올려두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6. 한 번 입장하시면, 정해진 감상시간이 끝날 때 까지 임의로 퇴장하실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작품의 경험은 시작된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 좌대 앞에 놓인 블루투스 헤드셋이 보인다. 좌대 너머의 공간에는, 안개가 뿌옇게 드리운 잔디밭이 보인다. 옅은 조명 하나가 10분에 한 번씩,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며 공간을 비춘다.

공간의 한 가운데에 누군가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관객은 안내받은 내용대로 헤드셋을 착용하고, 신발을 벗고, 공간 안으로 들어선다. 관객이 공간 안으로 들어서자, 그것을 인지한 '인터프리터'는 관객을 응시하고, 그와 시선을 맞춘다. 야생의 상태에서 낯선 타자와 조우하는 듯, 약간의 경계와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움직임은 이내 조금씩 적극적으로 상대를 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바뀌어 나간다. 동작들은 이윽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는 듯한 움직임으로 연결된다.
인터프리터는 공간 내에서, 특정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서는, 공간을 점유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부유하듯 존재한다. 잔디 밭 위에는 오직 둘 만이 잠시 고립된 채로 존재한다. 짧은 꿈처럼 '점멸'하는 장면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5. 인터프리터들을 위한 노트

이것은 구성된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각 10분간의 시공은, 절대로 반복되지 않을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인터프리터들(이하 A)에게 주어지는 장면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떤 공간에 두 존재(A와 B)가 고립되어 있다.
2. 둘은 정해진 시간 동안(10분) 존재한다.
3. 그 '시간'이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의 전부인 것 처럼,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그 시간만을 위해 그 곳에 선 것 처럼 존재한다.
4. A와 B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
5. A에게 주어지는 설정은
   (1). "B를 최대한 강렬하게 '의식'하며, 이를 B에게 강렬하게 드러낸다."
   (2). '의식하는 바'에 '반응'하라. (몸과 시선의 움직임을 수단으로)
   (3). 준비되거나, 습관적으로 나오는 움직임을 최대한 배제한다.
   (4).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황에 즉흥적으로 반응한다.
5. A는 공간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 (텐션을 유지한다.)
6. A의 모든 움직임은, B의 정동으로부터 비롯된다.
7. **A는 B의 타자인 동시에 동일자가 된다.**